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ren's Happiness*

황연덕(Yeon Dug Hwang)¹⁾

이진숙(Jin Suk Lee)²⁾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on styles of fathers and their children's happines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509 elementary school (225 5th, 6th graders) and middle school (284 1st, 2nd graders) students in Seoul and Jeonju city.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Barnes & Olson, 1982), the 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Moon, 2002), and the Happiness Inventory for Children (Lee, 2005).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bo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2.0 ver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a father's communication style on children's happiness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ir negative automatic thoughts. In conclusion, negative automatic thoughts has a mediating effect upon a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s it relates to the happiness of their children.

Key Words : 아버지 의사소통(father's communication style),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children's happiness), 부정적 자동적 사고 (negative automatic thoughts).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의 전문임.

¹⁾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n Suk Lee,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561-756) 664-14,
1ga Duckjin-dong, Duckjin-gu, Jeonju, Jeonbuk, Korea
E-mail : jslee0820@jbnu.ac.kr

I. 서 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편적인 정서로 행복한 일상생활을 바라는 마음은 아동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강도 높은 사교육과 학업성취압력, 또래 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은 그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은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그들의 개인 내면에서 긍정적인 만족감등의 인지적 평가와 그것에 수반된 정서가 형성될 때 행복감을 경험한다. 최근 긍정심리학(Compton, 2005)이 주목을 받으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심리사회적 연구들에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 관계, 적응을 꼽고 있다(Diener & Suh, 2000; Tamir, 2004). 아동의 경우도 개인의 자아특성과 그들의 주된 사적 및 사회적 공간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친밀한 대인관계와 적응수준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Kang, 2008; Lee, 2003; Cho, Shin, Choi, & Choi, 2009).

구체적으로 아동의 주된 사적 환경인 가정에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적인 표현으로서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아동과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에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으며(Kim, 2008),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적인 이해와 무조건적인 존중 등의 촉진적 의사소통방식을 사용 할수록 자녀가 보이는 위축, 우울, 미성숙,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im, 2003). 또한 부모자녀 간에 개방

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Kim, 2003),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방식은 아동의 공감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지배전략이 아닌 긍정적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였다(Yoo, 2010). 청소년의 경우 역시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이 개방형일수록 학교환경에서의 전반적인 적응수준이 높았다(Lee, 2005). Lee와 Kim(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우울, 자존감 및 가족 간의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전반적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과 정서가 낮아져서 결국은 아동,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악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부모의 태도, 사고, 사랑, 관념 등을 전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Thomas, 1977)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의 전반적인 삶과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활발치 않으며, 영유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와 사회·정서적 발달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외 아버지 의사소통 연구의 경우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의사소통의 차이(Jimenez & Delgado, 2002; Noller & Callan, 1990)나 청소년기 아버지-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Schock & Gavazzi, 2005). 또한 가족구조의 차이에 따른 아버지 의사소통의 특성

에 대한 연구로서 가족구조의 특성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고(Edwards & Lopez, 2006),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아동은 모-자녀, 부-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한 부모, 계부모 가족 등 여타 가족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Levin & Currie, 2010).

국내의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주목한 연구를 보면 Lee(2005)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의 지각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은 생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고한 Nam(200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높았으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도 낮고 아버지와의 친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Kook & Lee, 2003).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이 고등학생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버지 의사소통과의 단순 상관분석과 배경변인 및 성별 차이를 살펴 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의사소통과 행복감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들 수 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negative automatic thoughts)는 우리가 사건과 상황에 대면할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Beck, 1976)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내적인 의식화의 작업 없이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정적 언어와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아동이 일상 속에서 사건과 상황에 직면하여 그들의 경험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행동화 하게 될 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내재화되고 체제화 된 인지적 사고의 틀인 부정적인 인지적 신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신의 병리적 부분이나 심리적 장애에 있어서 인지적 사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o & Kwon, 2005; Beck, 1991; Ellis, 1989). 즉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우울증의 강력한 예측인자(Spence & Reinecke, 2003)이며 아동,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Kim, 2006; Shin & Ha, 2010).

전통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 병리적 측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생성에 대한 원인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Shin(2009)은 아동의 생활스트레스 및 부모 양육방식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예언하는 주요변인으로 아동의 생활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온정적, 거부적 양육방식을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의 긍정적인 사고의 경험에 부모 양육방식의 중요성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200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및 친구와 상호신뢰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낮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등과 함께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하였다(Shin & Ha, 2010). 즉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대학생들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부모의 양육방식 등의 영향을 받아 유발되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고 아동의 행복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 변인의 관계를 추론해 볼 때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영향이 간접적인 방식인 매개역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전까지의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행복감의 연구에서 세 변인이 함께 논의되기 보다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각각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건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아동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 행복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주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동의 삶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 의사소통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명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밝히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아버지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고와 정서 체계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밝히는 학문적 의의와 함께 학교와 상담현장에서 구체적인 지도 및 상담 계획에 도움을 주는 실생활의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 부정적 자동적 사고,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전라북도 J시 소재의 초등 5-6학년($N = 225$), 중학 1-2학년($N = 284$)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 509명(남학생 253명, 여학생 256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 고학년인 5-6학년과 중학 1-2학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생활 및 학업적인 부담감과 압력이 가중되는 시기이고, 발달적 특성상 변화와 갈등이 증가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로서 모든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자기보고식 문항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1) 아버지 의사소통 척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을 평가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검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Kim(2008)이 초등학교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 하위영역 각 10문항씩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문제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로,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문제적 의사소통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방적 의사소통의 Cronbach's α 값은 .91이며 문제적 의사소통은 .85로 나타났다.

2)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Moon(2002)등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자동적 사고 척도(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 K-CATS)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인지(depression cognition)는 실패나, 좌절, 무망감과 관련된 개

인적 실패를, 적대적 인지(hostility cognition)는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지각과 그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측정한다. 사회불안인지(social anxiety cognition)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타인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비웃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신체적 위협인지(physical threat cognition)는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인지적 내용을 반영한다.

Likert 5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5점 : '항상 그렇다') 32문항이며 점수의 총합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을 개인별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의 점수로 삼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여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3) 주관적 행복감 척도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2005)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Happiness Inventory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s)은 가정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평가하고, 자아특성(ego characteristics)은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능력(ability)은 학교상황에서의 유능성을 포함하며,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는 친구 관계를 포함하는 긍정적 대인관계 지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이며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87, .84, .80,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0 11월~12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6개 학교 18학급에 재학 중인 아동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서울시 소재 학교로는 초등 2개교(5-6학년 4학급)와 중 2개교(1-2학년 5학급)가 참여하였으며,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초등 2개교(5-6학년 4학급), 중 2개교(1-2학년 5학급)가 포함되었다. 학교장과 담당 교사의 사전 허락을 얻어 각 학급에서 총 63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59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한 총 50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수행하였으며, Sobel test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의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53(49.7%)명, 여학생이 256(50.3%)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

5, 6학년이 225명(44.2%), 중학 1,2학년이 284명(55.8%)으로 중학생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였다. 형제관계는 형제가 1명(57%)과 2명(31%)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외동의 경우는 9%였다.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적은 약간 잘하는 편이 29.5%, 보통이 37.1%로 과반수가 넘게 자신의 성적이 보통이상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부의 학력은 대졸이 38%, 대학원 졸업이 13.4%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51%로 나타나 부의 학력이 고학력인 경우가 과반수였다. 부의 직업은 전문 관리직(32.2%), 사무직(28.7%), 생산 기술직(20%)의 순으로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독립변인인 아버지 의사소통 중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 = -.34, p < .001$), 종속변인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52, p < .001$). 즉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 의사소통 중 아버지의 문제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정적상관을($r = .43, p < .001$) 보인 반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33, p < .001$). 이는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적으로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53 (49.7)	509(100)
	Female	256 (50.3)	
Grade / Gender	Elementary 5, 6 grade / M	122 (24.0)	509(100)
	Elementary 5, 6 grade / F	103 (20.2)	
	Middle 1, 2 grade / M	131 (25.7)	
	Middle 1, 2 grade / F	153 (30.1)	
Number of sibling	Only child	46 (9.0)	509(100)
	1	288 (56.6)	
	2	157 (30.8)	
	3	18 (3.5)	
Academic achievement	Very high	24 (4.7)	509(100)
	High	150 (29.5)	
	Average	189 (37.1)	
	Low	110 (21.6)	
	Very low	36 (7.1)	
Father's age (year)	35~40	87 (17.1)	509(100)
	41~45	224 (44.0)	
	46~50	146 (28.7)	
	More than 51	52 (10.2)	
Father's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19 (3.7)	509(100)
	High school graduate	182 (35.8)	
	College	48 (9.4)	
	Bachelor's degree	192 (37.7)	
	Graduate degree	68 (13.4)	
Father's job	No job	13 (2.6)	509(100)
	Manufacturing	102 (20.0)	
	Self-employed	84 (16.5)	
	Office worker	146 (28.7)	
	Professional and management	164 (32.2)	

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나($r = -.44, p < .001$),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 일수

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적 역할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식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역할 검증절차를 수행하였

<Table 2> Correlation of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related variables (N = 509)

Variables		Father's communication style		Negative automatic thoughts	Children's happiness
		Open	Problem		
Father's communication style	Open	-			
	Problem	-.53***	-		
Negative automatic thoughts		-.34***	.43***	-	
Children's happiness		.52***	-.33***	-.44***	-
<i>M(SD)</i>		3.00(.90)	2.30(.76)	2.06(.69)	2.88(.45)

*** $p < .001$.

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역할 검증절차는 3단계의 수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거나(완전 매개) 감소하는 것(부분매개)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회귀분석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값과 VIF지수를 살펴보았다.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컸으며, VIF지수 역시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개방적, 문제적 의사소통,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의 부적 및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Baron과 Kenny(1986)의 검증회귀식의 기본조건을 만족함으로 수행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성별과 학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두 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 시행하였다.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아버지 문제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Table 3을 보면 독립변인인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은 매개변인인 아동의 부정적 자동

<Table 3> Results of simple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children's happiness, father's open communication style, negative automatic thoughts

Step	Predictors	β	t	R^2	ΔR^2	F
1	Father's open communication style	-.33	-7.82***	.13	.13	25.43***
2	Father's open communication style	.52	13.61***	.29	.26	185.35***
3	Father's open communication style	.42	11.121***	.36	.07	52.75***
	Negative automatic thoughts	-.28	-7.2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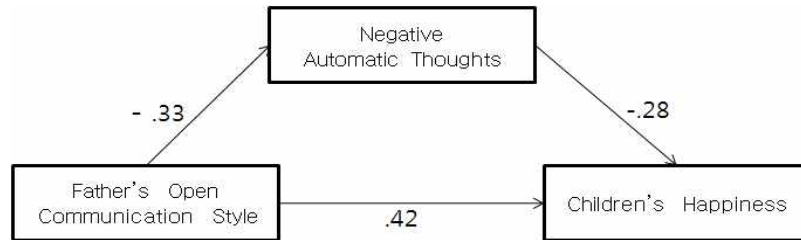
<Table 4> Results of simple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children's happiness, father's problem communication style, negative automatic thoughts

Step	Predictors	β	t	R^2	ΔR^2	F
1	Father's problem communication style	.41	10.19***	.19	.19	39.95***
2	Father's problem communication style	-.31	-7.25***	.12	.09	52.58***
3	Father's problem communication style	-.16	-3.73***	.22	.10	64.89***
	Negative automatic thoughts	-.35	-8.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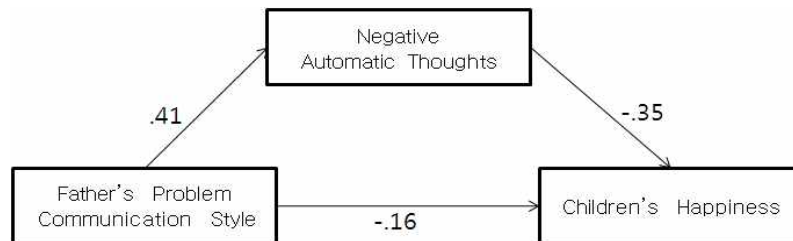
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beta = -.33, p < .001$), 종속변인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52, p < .001$). 이는 검증회귀식의 1, 2단계를 만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변인을 동시 투입하는 절차를 실시하였을 때, 아버지 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다($\beta = .52 \rightarrow \beta = .42, p < .001$). 이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부분매개에 해당하는 것이며 두 변인의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변인인 아버지 문제적 의사소통은 매개변인인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1, p < .001$), 종속변인



Sobel's $Z = 7.52, p < .001$.

<Figure 1> Result of father's open communication style on children's happiness partly mediated b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Sobel's $Z = -8.16, p < .001$

<Figure 2> Result of father's problem communication style on children's happiness partly mediated b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31, p < .001$). 따라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역할 검증절차 1, 2가 수행되었다. 끝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문제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변인을 동시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어($\beta = -.31 \rightarrow \beta = -.16, p < .001$)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아버지 문제적 의사소통의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12%였으나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추가 투입됨으로써 22%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1982) test로 확인한 결과($Z = 7.52, p < .001, Z = -8.16, p < .0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아버지 개방적, 문제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사이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Figure 1과 Figure 2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개방적, 문제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낮고 행복감은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높고 행복감은 낮았다. 그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수행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 부정적 자동적 사고,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낮은 반면 주관적 행복감은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생활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의 높은 영향력을 보고한 Shin(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아버지와 중학생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교사적응 등 학교 환경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와 중학생 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학교수업적응에 부적 영향을 나타낸 Lee(2003)의 연구 및 의사소통과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Lee(2005)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한 결과와 비교하여도, 안정애착을 보인 청소년은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관, 회피와 불안애착의 경우 부정정서와 정적 상관관 나타낸 연구들(Park, 2005; Yoo, 2005)과도 일정부분 같은 맥락이다.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하고 거리감을 적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주관적인 안녕감의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Min & Shin, 2007)한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높고 주관적 행복감은 낮게 지각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 역시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모-자녀, 부-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인 Levin과 Currie(2010)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보다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Kim & Kang, 2008)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는 것보다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이 아동의 행복감의 형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하였다. 아버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 매개하고 있었다. 즉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낮았으며 이러한 측면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버지의 문제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 매개하고 있었다. 이 경우 역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높았으며 이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지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의 개방적, 문제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자동적 사고

에 영향을 미쳐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Kim, 2010)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Shin & Ha, 2010)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바람직한 아버지 자녀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신념의 형성과 행복감의 긍정적인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버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부모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이고(Haiyan, 2004),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아동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가 턱없이 부족한 아동의 현실적 상황(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은 우려되는 부분으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인 다각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좋은 아버지 되기와 자녀 심리 이해 등의 아버지 교육, 아버지와 함께 하는 독서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의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증진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공적인 학교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개방적, 문제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밝힐 수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아동의 긍정적인 사고와 인지에 영향을 주어서 아동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연구의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첫째,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자녀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치 못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의사소통과 행복감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아동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고와 정서세계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밝히는 학문적 의의와 함께 학교와 상담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를 다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한 질문지법의 측정이 가지는 문제로서 솔직하지 못한 응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일부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아동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인 측면으로서 아버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Barns, H. L., & Olson, D. H. (199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Minneapolis, MN, US : Life Innovation, Inc.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1991). Cognitive therapy : a 30-year retro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April, 368-375.
- Cho, S. Y., Shin, H. Y., Choi, M. S., & Choi, H., Y. (2009). Surve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2), 129-144.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 Thomson Wadsworth.
- Diener, A., & Suh, E. M.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ss. : MIT Press.
- Edwards, L. M., & Lopez, S. J. (2006). Perceived family support, accultur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exican American youth : A mixed-methods expl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279-287.
- Ellis, A. (1989). *Comments on my critics. In inside rational-emotive therapy : A critical appraisal of the theory and therapy of Albert Ellis*. Academic Press, New York, 199-235.
- Haiyan, K. (2004). A study on parent-adolescent

- conflicts. *Psychological Science(china)*, 27(3), 696-700.
- Jimenez, A. P., & Delgado, A. O. (2002). Family communication and conflict during adolescence. *Anales de Psicología*, 18(2), 215-231.
- Kang, Y. H. (2008). Exploring the construct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159-177.
- Kim, J. M. (2008). The mediating effect of automatic thoughts i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197-224.
- Kim, J. M. (2010).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roles of automatic thoughts, mood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coping strategy as medi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 Kim, C. K. (2006). Depression in adolescence : Pa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and cognitive variable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7(6), 249-261.
- Kim, Y. J. (2002). The relation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 Kang, M. H.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s-child communication pattern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6), 35-54.
- Kook, G. S., & Lee, M. S. (2003).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to their self-esteem. *Journal of Human Science*, 23(1), 89-107.
- Lee, J. H. (2005). Development of happiness inventory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 Lee, M. H. (2005).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Levin, K. A., & Currie, C. (2010). Family structure, mother-child communication,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A cross-sectional multi-label analysi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Education* 110(3), 152-168.
- Lee, M. L. (2003). Cultural differences in levels of adolescent depression in relation to experience of daily life activi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senio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7(1), 137-152.
- Lee, S. K. (2005).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variables, gender, and curriculums o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21-1033.
- Lee, Y. S., & Kim, J. O. (2002).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33-159.
- Nam, J. H. (2001). Type of communic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Survey of korean Family(2010, 2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eoul, Korea.
- Min, S. H., & Shin, H. W. (2007).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mediated perfectionism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0), 83-95.
- Noller, P., & Callan, V. J. (1990).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349-362.

- Schock, A. M., & Gavazzi, S. M.(2005). Fathering court-involved daughters : Fathers' gender-specific concerns about their paternal role. Ohio State University. *Fathering*, 3(2), 121.
- Park, I. S. (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juveniles' attachment tendencies on their needs for social support,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Seo, S. G., & Kwon, S. M. (2005). The relation among irrational beliefs, automatic thoughts and ange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 327-339.
- Shin, M. J., & Ha, E. H.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2), 459-477.
- Shin, H. K. (2009).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life stress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83-1105.
- Sim, W.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290-312). San Francisco : Jossey-Bass.
- Spence, S. H., & Reinecke, M. A. (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mir, M. (2004). *The psychology of subjective well-being*. Department of Psychology, Boston College. 18-25.
- Thomas, E.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 The Free Press.
- Yoo, K. J. (200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Yoo, S. M. (2010). Effects of children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on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2월 9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